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8160.59	↓ 코스닥	1002.44
	(-478.82)		(-47.29)
↑ 금리 (미국재 3년)	3.882	↑ 환율 (원/달러)	1559.00
	(+0.024)		(+29.30)

metro® 경제

스페이스X
12일 나스닥 입성
115조 달러 몰리나
0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 위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시구 및 시타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네이버·두산 등 '간부' 확대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 나서
최태원·정희선 등 주요인사 회동
오늘 양재 현대차그룹 사옥 방문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 간 '밀월'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방한 이후 e스포츠 게임단 T1 방문, 삼겹살 회동, 예능프로그램 출연, 프로야구 시구(두산)로 나서는 등 엔비디아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높였다. 또 지난해 '간부 회동'을 통해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데 이어 이번에는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 우리나라 대표 빅테크는 물론 로봇 기업까지 '간부'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두산 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

을 의미하는 93번을 새긴 두산 유니폼을 입고 두산 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창립 연도인 1896년을 의미하는 96번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섰다.

이들은 시구와 시타에 앞서 대기실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이 그동안 로봇 및 자동화 분야 사업을 키워 온 만큼 이날 만남에서 엔비디아와 미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희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 국내 계열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황 CEO는 이날 점심 서울 을지로 우래옥에서 정희선 회장과 오찬 회동했다. 황 CEO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피지컬 AI 전략 등을 듣고 양사의 협력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

전략적 동맹을 맺은 만큼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프라 도입을 넘어 양사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억 달러(약 4조 6000억원)를 투입해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관련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한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간부차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과 회동을 진행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SK그룹과의 협업은 주목할 만하다. SK그룹은 엔비디아의 제조 AI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에 나선다. 제조 AI는 자동차, 로봇 등 물리적 형태의 실물 기기에 적용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 등에 활용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李, 총리 후보에 한성숙 지명

"IT기업 대표·中소장관 경험 바탕
시대적 과제 시대전환 완수 적임자"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지명했다. 여성 총리 지명은 2006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약 20년 만이다.

강원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강실장은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의 일부가

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로,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m-커버스토리

야간배송 허용 등 대형마트 족쇄 풀리나

유통법 개정안 처리 속도

전통시장 보호 명분 14년 된 법
'규제 사각' 이커머스 공룡 키워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통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규제 완화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선거기간 표심을 의식해 멈춰 섰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내 온라인 야간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택으로 입법 지연되는 사이 고착화된 온·오프라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유통법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보다 오프라인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역차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온라인 유통 비중은 전체 시장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실제 수치로도 규제의 비대칭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에 묶여있던 기간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매출은 2012년 845억 원에서 지난해 49조 1197억 원으로 약 60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대표 주자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같은 기간 매출 정체와 점포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SAMSUNG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026. 06. 08 ~ 07. 05

구매금액

20%

제품 구매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 가능, 데이코, 하만, 소모품,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 제외
*이동통신사 구매 제품은 모델별 정액으로 지급 (모델별 지급금액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K-Hero 혜택

30%

국민께 봉사하는 K-Hero 분들에게 (군인 및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10% 추가 혜택

*삼성전자 패밀리룸에서 대상 모델 구매금액의 10% 추가 혜택 (구독 제외)

구독료 지원

6개월

AI 구독클럽 6개월 구독료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원

*PC/Tab/모니터 4년, 로봇청소기 5년, 그 외 TV 및 가전제품 6년 가입 한정 (스마트폰 제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